

‘간호법 제정 위해 총력’

존중간호리더십 교육 ... 간호사 인식개선 캠페인

제86회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

대한간호협회는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월 19~20일 롯데호텔제주 크리스탈볼룸에서 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간호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존중간호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간호사 인식개선 캠페인, 간호수가 개선 활동, 간호정책 아카데미 개최, 간호사 및 국민 대상 홍보체계 혁신에 힘쓰기로 했다. 보수교육 질 관리,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 2019 국제간호협회(ICN) 학술대회 참가,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 및 아시아간호연맹회의 개최 등에 주력한다.

또한 회비 조정안 심의를 통해 2014년 도입한 회원복지포인트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회비 및 지부비는 동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대의원총회 개최식 건의문·결의문 채택

대의원총회 개최식은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혁신 주도’ 주제로 오후 2시에 시작했다.

이날 개최식에는 위성곤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강도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최영희 전 국회의원(전 대한간호협회장), 이애주 전 국회의원(전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김조자 전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호사업자문위원과 원로회원, 전임 대의원총회 의장, 역대 나이팅게일장수상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강정일 국회의원, 신상진 국회의원, 유성업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축

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개회사를 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해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모두가 합심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간호의 역사를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지난해 거둔 성과를 보고했다.

신경림 회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로 간호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2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의료법이 개정됐고, 올해에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18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이어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방문간호관리 간호사가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사회 건강돌봄을 주도했던 보건소 간호사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실현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문화된 간호서비스

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이직방지와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예산 77억원이 확보됐다”면서 “올해 마련된 정부예산은 우선 국립병원에만 집행되지만, 내년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반영되도록 해 국립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도 간호사 이직방지와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TF 보건복지부에 설치

신경림 회장은 “1970년에 폐지됐던 간호전담부서가 드디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로 신설됐다”면서 “지난해 3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간호사 확보를 위해 입학정원만을 증원해왔던 과거 정책과는 달리 간호사의 근무환

경과 처우개선을 기반으로 하는 간호정책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대책에는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실현할 재원 마련 방안과 정부 조직 설치가 포함됐고, 올해 2월 1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의 설치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45년 만에 다시 설치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양질의 간호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함으로써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간호사는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근무 장소와 분야를 넘어서, 국민들이 살던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

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국민들이 ‘간호’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의료기관-시설-가정 어디서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이러한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에 대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의료비의 집값을 실현하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인력 즉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보조인력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만 적용이 제한됐던 낡은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적용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범용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2면에 계속)

건의문

우리 41만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실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정규직제로서의 간호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합니다.
- 간호인력의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간호수가 별도 신설을 건의합니다.
- 2020년 3월 시행될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과 역할에 합당한 업무범위 명시를 건의합니다.
-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방문간호 중심 통합가사서비스와 간호사 중심 전문요양실 설치를 건의합니다.

2019. 2. 19.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회장 외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결의문

우리 41만 간호사는 국민이 안전하고 간호사가 행복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간호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모든 의료기관이 법정 간호인력과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여 간호사가 행복한 근무여건을 조성해가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간의 통합적인 업무체계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매우 근절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간호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대한간호협회 소속 모든 단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 2. 19.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회장 외
제86회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